

이덕일의 '역사의 창'



남북한이 바라보는 '임나=가야' 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야사 복원'에 대해 언급했다. 가야의 강역은 경상 남·북도보다 넓었다면서 가야사 복원이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 정책 과제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물론 문 대통령은 고대 가야사 복원과 영호남 화합이란 좋은 취지로 맞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야사 복원이 영호남 화합이란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야 아니다. 게다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점령 논리였던 '임나일본부설'과도 관련이 있다. '임나일본부설'이란 고대 야마토왜가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후반까지 한반도 남부의 가야를 점령해서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지배했다는 이야기다.

북한의 가야사 연구자 조희승은 '임나일본부설 해부' (평양출판사, 2012)에서 '임나일본부설'을 '대표적인 사이버 학술'이라고 비판하면서 '임나일본부설을 일명 '임나설'이라고도 한다'라고 말한다. 임나설이란 가야가 임나라는 '임나=

가야' 설을 뜻한다. 조희승은 임나일본부설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가야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가야사부터 서술하고 있다.

북한은 가야 영역이 가장 넓었던 서기 3~4세기의 강역을 "북으로는 락동강의 상류 지역인 상주와 선산 일대, 서쪽으로는 소백산 줄기와 섬진강 계선, 동쪽으로는 락동강 건너 비교적 넓은 평역을 차지하였다"(임나일본부설 해부)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성기 때 가야는 북쪽이 선산과 성주, 서쪽이 영호남을 가르는 소백산맥과 섬진강, 동쪽이 낙동강 동쪽 유역이므로 지금의 영남을 넘은 적은 없다. 가야사를 영호남 화합으로 보는 것은 가야가 충청·전라도 일대까지 걸쳐 있었다는 것인데, 이 경우 백제사와 충돌한다. 백제는 전라도는 물론 충청도도 다 차지하지 못한 소국으로 전락하는데, 이는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실제 역사와 아주 다르다.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임나=가야'라고 쓰고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은 '임나=

가라'라고 쓰는데, 양자는 모두 '임나=가야'라는 전제 아래 '임나=가야'의 영역을 충청도 및 전라도까지 확장시켰다.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는 임나강역을 지금의 김해 일대로 본 반면 조선총독부의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경북 고령까지 확대했다. 조선사편수회 간사이자 경성제대 교수였던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일제 패망 후 쓴 '임나흥망사'(1949)에서 임나가 충청도·전라도까지 차지했다고 우겼다. 이 스에마쓰의 논리가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남한 강단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1963년 월북 학자 김석형이 '삼한·삼국의 일본열도 분국설'에서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 세운 소국·분국이라는 분국설을 제기해 일본 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남한 강단사학계가 분국설을 지지했다면 '임나=가야' 설은 지금쯤 자취를 감췄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거꾸로 분국설을 비판하면서 일본에 가세했다. 총론으로는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하지만 임나일본부설과 동전의 양

면인 '임나=가야' 설이 정설이라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야에는 왜인들이 주재하는 외교기관이나 교역기관 등이 있었다는 성격 논쟁으로 논점을 흐리면서 그 강역을 전라도까지 넓혔다.

임나가 전라도까지 지배했다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임나 관련 기사가 다수 나와야 하지만 일절 나오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조희승은 "일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일부 친일학자들이...우리 학계의 정당한 학술을 '과학을 민족적 감정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비판한다"고 말한 것이다. 북한이 경제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한보다 우위에 있는 듯이 사고하는 뿌리에는 남북한 역사의 차이가 있다. 북한이 1963년 무너뜨린 '임나=가야' 설을 아직도 정설이라고 우기고 있는 남한 강단사학계가 우습게 보일 것은 물론이다. 이 분야에 관한 한 남한 강단사학계는 아직도 환국신민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의료칼럼

삼복더위 건강 관리



정지연 삼무힐링재활요양병원 원장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농번기에는 부지런히 일해야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뜻이다.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의 초복, 중복, 말복을 삼복이라고 하며, 이 무렵의 몹시 심한 더위를 삼복더위라고 한다. 복날에는 허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고기나 과일을 먹으면서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했다.

사절기의 하나인 여름은 6월부터 8월까지 90일 동안을 말하며, 기상청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로 정의한다. 초여름과 늦여름은 일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이며, 한여름은 일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최근 들어 도시 열섬 현상으로 인해 대

도시에서 열대야 현상이 크게 증가해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5도 이상인 날을 열대야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철이 끝난 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올해도 기상청에서는 전국에 폭염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여름철 건강 관리는 겨울철 못지않게 중요하다. 체감 기온이 40도 이상이 되는 한여름에는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름철에도 잦은 장마와 높은 습도로 인해 일교차가 심해 뇌졸중과 심근 경색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첫째, 노인들의 건강 관리는 무엇보다 균형 있는 식사가 중요하다.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한 번에 많은 음식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또한 고온 다습한 여름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육류, 어패류, 해산물 등은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와 수분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이 여름철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뜨거운 햇빛이다. 한 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아침, 저녁으로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외출을 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의 온도 차가 8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

셋째, 여름철은 다른 계절과 달리 고온에 노출돼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수분이 부족해 탈수증이 생기면 열사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변의 색깔이 짙어지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분 보충은 찬물이나 탄산 음료보다 미지근한 물이나 이온 음료가 효과적이다.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넷째, 휴가철에는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으로, 섬으로, 강으로, 바다로, 해외로 피서를 떠난다. 햇빛으로 인한 일사병과 피부질환을 주의해야 하며, 지나친 음주와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한

다. 반드시 예방 수칙과 행동 요령을 숙지해 안전한 휴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손 씻기이다. 손만 잘 씻어도 식중독, 눈병, 피부병, 감기 등 여러 가지 감염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 화장실 다녀와서, 애완동물과 놀고난 뒤,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리고 책이나 돈, 핸드폰, 컴퓨터 등을 만지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씻기를 해야 한다. 손 씻기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전에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없이 부채로 여름을 보냈다. 그래서 여름철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까지 생겼다.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고위험 환자가 있는 경우 하루 한 번씩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로 연락하고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는 명언을 기억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

기고

주차 공유와 공동체, '혁신 교육' 기회가 되길



윤만형 건국초등학교 교장

빛고을 혁신 학교인 우리 건국초등학교는 나눔과 배려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바른이', 꿈과 끼를 자신의 빛깔로 펼쳐가는 슬기로운 '문센이', 밝고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당당한 '튼튼이'라는 교육 목표를 두고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어느덧 혁신 학교 4년차에 이르면서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학생과 학부모들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미래의 인재상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과정의 다양화·특성화가 필요하

는 '혁신'의 가치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점단 2지구 신도시 조성 이후 인구 유입에 따라 2014년 개교한 신생 학교로, 학교 주변은 아파트 및 원룸 등의 대단위 주택 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학교 주변의 주차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집집마다 한두 대씩은 기본이다 보니 차량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아이들의 통학로까지 점령할 지경에 이르렀다. 통학길 아이들이 인도 주차 차량을 피해 도로 위를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통학로에 차량이 없으면 아이들이 훨씬 안전한 텐데..."라는 아쉬움이 든다.

때마침 학교 주차장을 야간 시간대 개방해 달라는 북구청의 요청이 왔다. 흔쾌히 승낙하기는커녕 걱정이 앞섰다. 혹시 교내 주차된 차량으로 아이들이 사고가 나진 않을까?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오면 위험할 수 있을 텐데... 현행 규정상 학교의 모든 안전 사고며 시설물 관리 책임은

교장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갖 걱정이 앞선 게 사실이다.

하지만 통학길 인도 위 불법 주차 차량과 야간에 텅 빈 학교 주차장을 보면서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과연 학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의 방법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북구청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수립한 개방 주차장 관리 및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인 북구청장님의 학생 학습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지를 확인한 뒤 주차장 개방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다.

오리려 학교의 높은 담장을 낮추고 지역 사회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혁신 교육의 일환이며, 이를 계기로 아이들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고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혁신 학교 특성상 교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에 전 교직원과 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위원, 학부모회,

독서토론회, 녹색학부모회 회장 등 학부모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학교가 지역 사회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진정한 교육이라는 데 모두 뜻을 같이하였고, 결국 '주차장 개방'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개방을 결정하였지만 속제는 남아있다. 학교의 주인은 우리 교사나 학부모가 아닌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자기들의 공간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인 만큼,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정해진 약속을 잘 지켜 소중하게 이용해 주길 그저 바랄 뿐이다.

또한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해진 규칙과 약속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줘 공동체 일원으로 자라날 우리 학생들이 몸소 배울 진정한 '혁신 교육'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社說

군 공항 이전 공감대 형성 정부가 나서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광주 시와 무안군 등 해당 자치단체들이 소통과 대화보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전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무안군은 최근 9개 읍면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 전투 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신청한 보조금 1억 원을 지급했다. 보조금은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설명회, 캠페인, 현장 견학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사회단체 한 곳에 역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사실상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 저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대정부 촉구 활동 및 이전 분위기 조성, 시도 민 홍보 활동을 위해 60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성할 바 있다. 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홍보 활동에 돌입한 것이다.

반면 민선 7기 출범 직후 광주-무안 공항 통합과 군 공항 이전을 첫 번째 상생 발전 과제로 제시한 광주시와 전남도 간 소통은 미약하기만 하다. 군 공항 이전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안군 주민들이 광주의 이전 추진 운동에 대해 '일방통행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보다 국방부가 직접 나서 주민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5조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어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국토방위 차원의 명확한 명분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소음 뿐만 아니라 보다 획기적인 지역 발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하되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노숙인 보호·지원 사회안전망 절실하다

노숙인들의 생계형 범죄가 부쩍 늘었다. 경기침체로 급격히 늘어난 노숙인들이 사회안전망 부실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광주 지역 노숙인 보호·지원 시설은 '무등노숙인 쉼터'(수용 인원 20명)와 '광주희망원'(200명) 등 두 곳뿐이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시설에서 연평균 40여 명이 퇴소하면 그 자리를 새로운 노숙인들로 채우는데, 입소 대기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퇴소자들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흔하다.

문제는 광주시와 관할 구청, 그리고 경찰 등 기관·단체들이 사실상 노숙인 보호에 손을 놓으면서 이들이 생계형 범죄로 인한 전과자 신세가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엇그제 광주북부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광주시 복구의 한 교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6만 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14만 원 상당의 먹을 거리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서에 협박 혐의로 붙잡힌 B씨는 술을 마신 뒤 편의점 업주를 가위로 위협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노숙인 문제는 실업, 좌절, 가족 해체 등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경쟁을 강요하는 냉혹한 사회구조에서 밀려난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이다. 이제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이들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광주시가 노숙인을 보살피고 재기를 돕는 재활시설을 늘리는 것이다. 하루 한 끼 식사와 옷을 제공하는 대동적 처방에서 벗어나 이들이 당당하게 직업인으로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책을 좋아해 많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은 책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많지요. 이사를 때마다 어찌해야 하나 고민도 하구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집안을 어지럽히는 주범 중 하나가 '책'인 경우가 많을 터다. 책장과 책상을 넘어 이곳저곳 자리를 차지한 책들은 책 주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에게는 그저 애물단지일지도 모른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가장 옮기기 힘들어 하는 물품도 책이 아닐는지.

그래서 고향 답양에 향토사 전문 책방 '이목구심서'를 오픈한 문화기획자 정교필 씨가 '장

곳에 서울 서재의 책을 가져다 놓았다. '도교대생들은 왜 배보가 되었는가' 등으로 유명한 일본 논픽션 작가 다치바나 다카시의 '고양이 빌딩'은 책을 좋아하는 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다. 건물 외벽에 검은 고양이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쿄 주택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빌딩엔 20만 권의 장서가 쌓여 있다.

이들 두 사람처럼 '책과 함께하는 근사한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로망일 뿐이다. 그

책 나누기

릴 맨 '책 나눔'에 눈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지? 시민들이 기증한 책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게' 용봉점 현책방이 벌써 10주년을 맞았다. 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제품 등을 판매하는 책방의 구매 고객은 9만2100명에 이르렀고, 그동안 56만 6400여 점이 판매됐다. 소소한 마음이 모여 큰 기적을 낳은 것이다. '이목구심서' 역시 향토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집 등을 기부받았다고 한다. 우리 집 책장에 잠들어 있는 책이, 혹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